
2023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4. 1.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

I. 2023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	1
II.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괄)	10
III. 청렴체감도 영역 평가 결과	12
IV. 청렴노력도 영역 평가 결과	19
V. 부패실태 평가 결과	32
VI. 심층 분석	34
VII. 향후 계획	39

붙임 :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 노력도) 등급표

I 2023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1.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 목적 및 근거

- 국공립대학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여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

< 법적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12조(기능)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대상 기관 및 평가 주기

- 4년제 국공립대학 33개(법인대학 6, 중앙부처 관할 국립대 26, 공립대 1)
 - 대학 규모에 따라 매년 평가 기관과 격년 평가 기관으로 이원화, '23년은 매년 평가대상인 16개 대학 대상 평가
- ※ 신입생 모집정원 2,500명 이상 12개 국립대학과 4개 과학기술원은 매년 평가, 소규모인 17개 대학은 격년 평가

□ 평가 체계

- **청렴체감도(설문) + 청렴노력도(실적·설문) - 부패실태 평가(발생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방법
청렴체감도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업무(계약) 및 조직내부 운영(연구 및 행정) 전반에 대해 계약상대방 및 관련자·내부직원 대상 인식·경험 측정 ※ 조사대상 : 계약 업무 경험자 1,623명, 기관 내부 구성원 4,580명 	설문조사
청렴노력도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내부구성원 설문조사를 통한 시책효과성 체감 정도 평가 ※ 평가지표 : 반부패 시책 추진계획 수립, 기관장 관심과 노력도, 공공재정 부정수급 점검, 시책효과성 등 10개 지표(특화) 	정량·정성평가, 설문조사
부패실태 (최대 10%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행위 징계, 감사·기소·재판 결과, 연구부정행위 제재 처분 등 기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 ※ 정량(5점) : 부패행위자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사건 발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점수화 ※ 정성(5점) : 조직적·관행적 사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 심의회를 통한 정성평가 	정량·정성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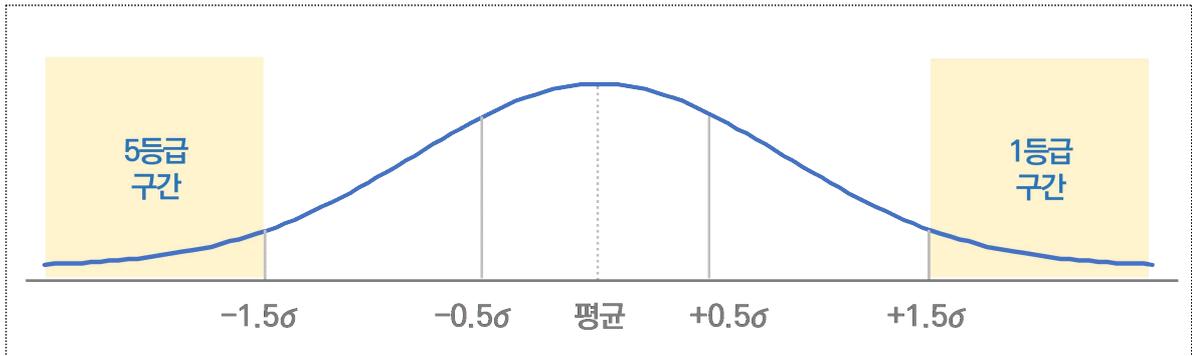
※ 신뢰도 저해행위 및 협조의무 미이행 시 총점에 감점으로 반영

□ 국공립대학 평가 특징

- **(청렴체감도) 대학의 특수한 부패취약 분야인 연구 분야 포함 측정**
 - **(부패인식)**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항목과 동일하게 구성하되, 연구 및 행정 영역에 **연구과정에서의 법령·규정 위반** 관련 항목 추가
 - ※ 연구윤리 준수 정도,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 **(부패경험)** 연구 및 행정 영역에서 청렴의무 위반 부패경험률·빈도와 함께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빈도 측정
- **(청렴노력도) 기관 유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화모형 적용**
 - 반부패 시책 추진역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12개 지표 중 **10개 지표** 적용
- **(부패실태 평가)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제재처분 포함**
 - ‘연구부정행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학술진흥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사건을 **부패실태 감점**에 포함하여 반영

□ 결과 산정

-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평가 결과를 1~5등급으로 구분
 - 기관별 등급은 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등급 구간을 산정 → 기관 총점에 따라 등급 부여



2. 청렴체감도 평가 개요

□ 개요

- 외부업무(계약) 및 조직내부 운영(연구 및 행정) 전반에 대해 계약상대방 및 관련자, 조직내부 구성원 대상 부패인식·경험 측정(설문조사)
- 연도별 시계열 분석을 위해 설문의 큰 틀과 방향은 유지하되, 문항은 개선·간소화하여 응답자 부담 경감

□ 평가 모형

- 대학 외부업무인 '계약'(가중치 22.2%) 영역과 조직내부 운영인 '연구 및 행정'(가중치 77.8%) 영역의 체감도를 가중합산
 - ※ 영역별 가중치 및 설문 항목별 가중치는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등 의견 조사(델파이기법)를 통해 산출

< 청렴체감도 측정 체계 >



구분	내용
측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계약 상대방 및 관련자 ▶ (연구 및 행정) 교원, 직원, 강사, 연구원, 조교, 박사과정 등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응답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인식 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 방식, 부패경험 항목은 경험 여부, 빈도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 ▶ (방법) 계약 영역은 전화, 온라인(전자우편, 모바일) 조사 병행, 연구 및 행정 영역은 온라인 조사로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조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률 제고

○ (계약) 부패인식 7개, 부패경험 2개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성

- 계약업무 과정에 대한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를 가중합산한 부패인식 점수에 부패경험 점수를 감점(최대 15%)으로 반영하여 산출

※ 부패인식 4개 항목(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 및 부패경험 2개 항목(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빈도)은 계약·연구 및 행정 영역 공통

< '23년도 '계약(외부업무)' 설문 항목 >

구 분		설문 항목	내용	가중치
부패 인식 (100%)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18.4%
		특혜제공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17.4%
		업무투명	투명한 업무처리 ('23년 신규)	12.7%
		절차위반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11.8%
	공직자의 권한남용	갑질행위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14.0%
		사익추구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16.0%
		소극행정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9.7%
부패 경험 (-15%)	청렴의무 위반	부패경험률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55.2%
		부패경험빈도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44.8%

- (연구 및 행정) 부패인식 9개, 부패경험 4개 등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
 - 대학 내부 운영과정에 대한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를 가중합산한 부패인식 점수에 부패경험 점수를 감점(최대 15%)으로 반영하여 산출
 - 국공립대학은 연구 과정에서의 법령·규정 위반에 대한 인식·경험 추가 측정
- ※ 부패인식 4개 항목(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 및 부패경험 2개 항목(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빈도)은 계약·연구 및 행정 영역 공통

< '23년도 '연구 및 행정(조직내부 운영)' 설문 항목 >

구 분		설문 항목	내용	가중치
부패 인식 (100%)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10.7%
		특혜제공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11.2%
		부당지시	업무수행상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10.8%
		인사위반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9.3%
	공직자의 권한남용	갑질행위	직무·직위·직책 등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11.0%
		사익추구	직무관련 영리행위 또는 직무관련 정보나 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12.4%
		예산 부당집행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11.1%
	연구과정 법령·규정 위반	연구윤리 준수여부	연구윤리 준수 정도	9.5%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14.0%	
부패 경험 (~15%)	청렴의무 위반	경험률	조직내부 운영 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26.4%
		경험빈도	조직내부 운영 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23.5%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	26.6%
		경험빈도	연구비 횡령·편취 빈도	23.5%

□ 평가 방법 (설문조사)

○ 설문 대상자 : 총 6,203명

구분	규모(명)	조사 대상
계 약	1,623	'22. 7. 1. ~ '23. 6. 30. 사이에 해당 국공립대학의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경험이 있는 관계자
연구 및 행정	4,580	'23. 6. 30. 기준 해당 국공립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강사, 연구원, 조교 및 박사 과정생 등 구성원

- 조사 내용 : 최근 1년간('22. 7. 1. ~ '23. 6. 30.) 부패인식과 부패경험 설문
- 조사 방법 : 전화, 온라인(이메일, 모바일)
- 조사 기간 : '23. 8월 ~ 11월
- 신뢰 수준 : 계약 영역 95%, ±0.9점/ 연구 및 행정 영역 95%, ±2.2점

3. 청렴노력도 평가 개요

□ 개요

- 국공립대학의 반부패 추진실적을 사전 설정된 지표를 통해 평가하여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유도

□ 평가 모형

- 추진체계(2개), 추진실적(7개), 시책효과성(1개)으로 구성
 - 국공립대학은 전체 12개 지표 중 필수지표 중심의 10개 지표 적용



< 청렴노력도 지표 >

지표번호	구분	항목	배점
1	추진체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6점
2	추진실적	기관별 부패취약 분야 개선	20점
3	추진체계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15점
4	추진실적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10점
5	추진실적	부패 유발요인 정비	10점
6	추진실적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10점
9	추진실적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1점
10	추진실적	감점지표 - 부패신고 처리 내실화 등	최대 -7.5점
11	추진실적	가점지표 -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등	최대 +2.5점
12	시책효과성 평가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구성원 인식 설문 결과	10점

※ 총점(가점 포함 최대 82점)을 100점으로 환산

□ 평가 방법

- 기관이 제출한 추진 실적에 대해 외부 및 내부(소관 부서) 전문가 평가단이 서면평가
 - 기관의 이의제기 및 검토, 국민권익위 현지점검 등을 통해 실적 확인 후 기관별 청렴노력도 점수 산출
 - ※ 대상기간 : '22. 11. 1. ~ '23. 9. 30.
- 일부 지표*는 설문조사와 통계자료(청렴체감도 결과) 활용
 - * 시책효과성 평가, 청렴컨설팅 참여 지표 등

4. 부패실태 평가

□ 개요

- 평가기간('22. 7월 ~ '23. 11월) 중 기관의 부패행위 발생현황을 점수화 하여 평가에 반영
 - ※ 자세한 평가기준 및 방법은 '2023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공문 통보, '23. 5. 1.)

□ 평가 기준

- (대상) 국공립대학 소속 공직자의 부패사건
 - 징계(당연퇴직, 포상감경 불문경고 포함)가 이루어지거나,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혐의)가 확인된 사건
 - 연구부정행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학술진흥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은 사건
 - * 연구개발성과 위조·변조·표절·저자부당표시, 연구비 용도 외 사용·사용기준 위반 등
- (유형) 반부패 법령* 관련 부패사건, 연구부정행위 관련 사건, 직무관련 성 비위 사건 등
 -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기관별 행동강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 등
- (범위) 기관의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외부적발 사건만 반영
 - ※ 국민권익위, 공수처, 검·경찰, 감사원, 상급 감독기관, 언론 등 외부적발

□ 평가 방법

- (정량) 부패행위자의 직위, 기관 총 부패금액, 기관 정원규모,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최대 5점)
 - * 3년 이내('21년~'23년) 발생한 사건은 가중,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감경 반영
- (정성) 주요 부패사건, 외부적발 부패사건 비율이 높은 기관 등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회를 통해 정성평가
 - ※ (주요 부패사건)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조직적·관행적 부패로 언론·국회·감사 등 지적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 등
 - (외부적발) 전체 부패사건이 일정 건수(5건) 이상, 외부적발 비율 50% 초과

5. 신뢰도 저해행위 등 제재 조치

□ 개요

- 종합청렴도 평가 과정에서 평가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제재
 - ※ 자세한 제재기준·규모 및 방법은 '2023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공문 통보, '23. 5. 1.)

□ 제재 대상

- 설문 명부 누락·조작, 호의적 응답 유도, 국민권익위의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실적자료의 제출 지연, 미제출, 허위·조작 제출 등
 - ※ 대상기관 현지점검, 상시 제보 및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응답 등을 통해 적발

□ 제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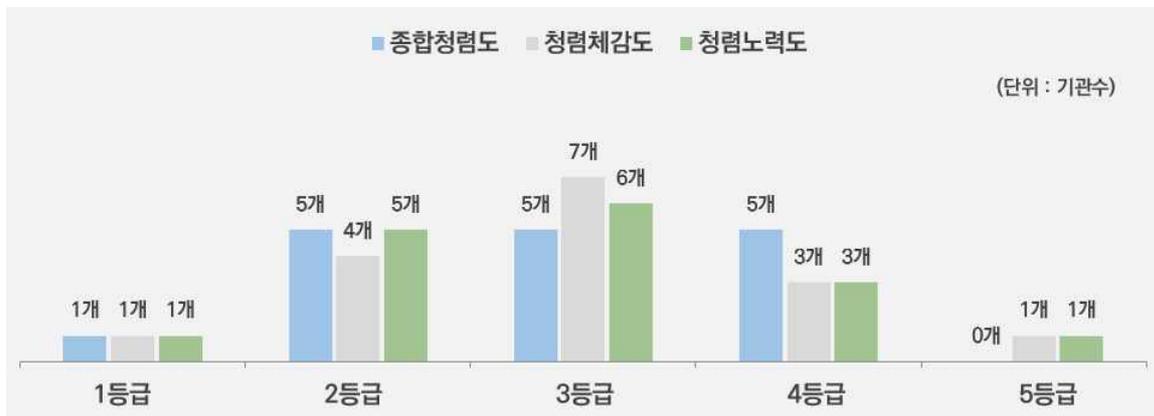
-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제재 조치 필요성 및 정도(주의·경고, 감점 등) 심의·결정

II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괄)

□ 종합청렴도 점수 및 등급 현황

- (점수) 16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77.6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2.4점)
- (등급)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 1개(6.3%), 5등급 기관 0개(0%)

< 등급별 기관 수 분포(16개 기관) >



※ 기관별 등급표는 붙임 참조

- (큰 폭 개선)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2개 등급 상승 기관 1개(경북대, 4→2등급)

□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

- (총평) 청렴체감도는 76.2점으로 전년 대비 하락(-1.4점)
 - 계약 영역 체감도는 94.5점(전년 대비 -0.7점), 연구 및 행정 영역 체감도는 71.0점(전년 대비 -1.6점)
 - 계약 영역과 연구 및 행정 영역 간 격차가 전년보다 더 벌어지며 큰 차이를 보임('22년 22.6점 차이 → '23년 23.5점 차이)
- (계약) 부패인식 점수 95.4점, 부패경험 감점 -0.9점
 - 부패인식 세부항목 중 '23년 신규지표인 '투명한 업무처리'(91.7점)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부패경험률 0.06%, 응답자 평균 경험빈도 0.001회로 0.9점 감점

- (연구 및 행정) 부패인식 점수 78.5점, 부패경험 감점 - 7.5점
 - 부패인식 세부항목 중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71.6점)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2.16% 및 응답자 평균 경험빈도 0.058회,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 2.49% 및 응답자 평균 경험빈도 0.127회로 7.5점 감점

□ 청렴노력도 평가 결과

- 청렴노력도는 82.6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3.8점) 개선되어 청렴체감도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종합청렴도 향상에 영향
- 총 10개 지표 중에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지표가 가장 높고(92.2점), '부패 유발요인 정비' 지표가 가장 낮게(71.9점) 나타남

<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별 점수 >

청렴 노력도(점)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취약 분야 개선	기관장 관심과 노력도	반부패·청렴교육	부패 유발요인 정비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반부패 정보공개	시책 효과성	감점	가점
82.6	92.2	83.6	83.6	90.3	71.9	83.8	84.4	73.3	-0.03	+0.16

□ 부패실태 평가 (감점)

- 감점 기관 수는 9개, 총 부패사건 수는 33건, 감점 기관의 감점 평균은 2.1점(전체 기관 평균 1.2점)
- 감점 기관 비율(56.3%)은 전년(72.7%)에 비해 감소
 - ※ '22년 33개 평가대상기관 중 24개 기관에서 발생한 78개 사건 반영

□ 신뢰도 저해행위 등 제재 조치 (감점)

- 감점 기관 수는 1개로 0.1점 감점(설문조사 명부 중복 제출)

III 청렴체감도 영역 평가 결과

1. 청렴체감도 영역 전반

- 16개 국공립대학 평균 청렴체감도는 76.2점으로 전년 대비 1.4점 하락
 - (계약) 대학의 계약 업무를 경험한 계약상대방 및 관련자들이 평가하는 계약 영역(가중치 22.2%)은 94.5점(전년 대비 -0.7점)
 - (연구 및 행정) 대학 내부 구성원들이 조직내부 운영에 대해 평가하는 연구 및 행정 영역(가중치 77.8%)은 71.0점(전년 대비 -1.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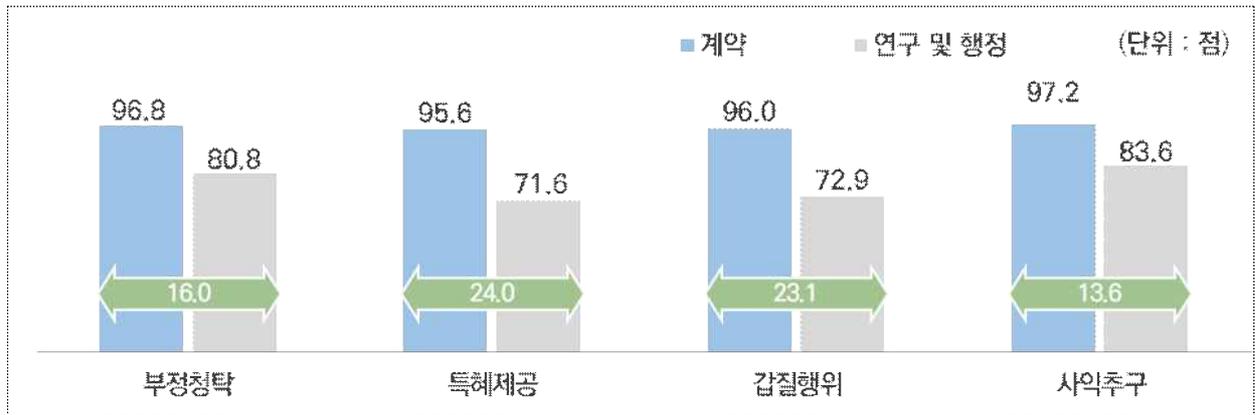
< 청렴체감도 및 영역별 점수 전년 대비 변화 >



※ 전년과 평가대상 범위가 다르므로('22년 33개 전체 국공립대학, '23년 매년 평가대상 대학 16개) 비교는 제한적임에 유의(이하 전년과 비교 시 동일)

- 국공립대학 청렴체감도 영역 간 비교 시, 계약 영역(94.5점)이 연구 및 행정 영역(71.0점)보다 큰 차이로 높게(+23.5점) 나타남
 - (부패인식) 부패인식 점수는 계약 95.4점, 연구 및 행정 78.5점으로, 동일 항목 모두 계약이 높았고, '특혜제공'의 차이가 가장 큼(24.0점)
 - (부패경험) 부패경험 감점은 계약 -0.9점, 연구 및 행정 -7.5점으로 연구 및 행정에서 더 크게 나타남

< 청렴체감도 영역 간 동일 항목 부패인식 비교 >



○ 전체 공공기관*(80.0점)과 비교 시, 청렴체감도는 3.8점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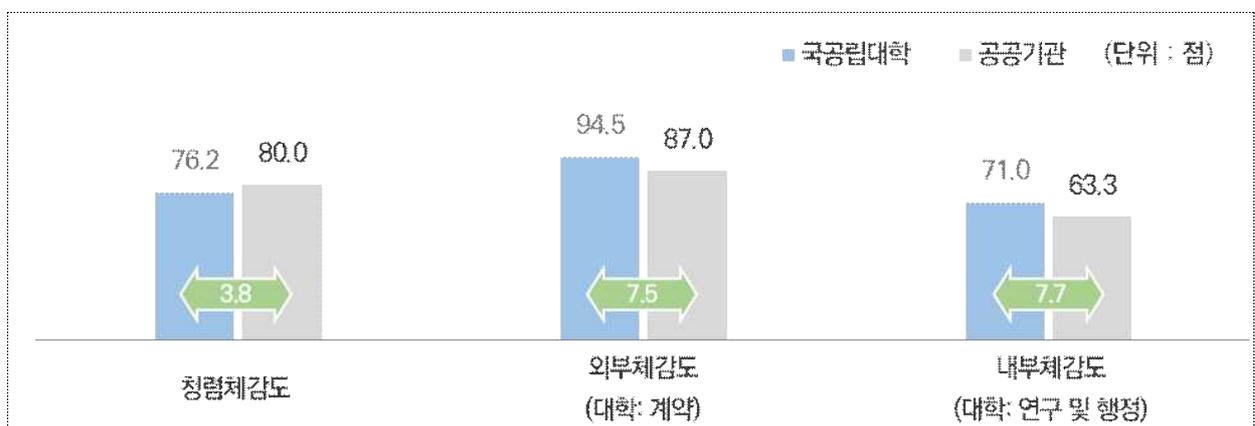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498개 기관 대상 측정 결과로, 국공립대학과 측정 모형·항목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 시 주의 필요(이하 전체 공공기관과 비교 시 동일)

- (공공기관) 전체 공공기관의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이 평가한 외부 체감도는 87.0점, 내부 직원이 평가한 내부 체감도는 63.3점
- (영역별 비교) 공공기관의 외부체감도에 상응하는 계약 영역 체감도는 7.5점, 내부체감도에 상응하는 연구 및 행정 영역 체감도는 7.7점 높음
- (전체) 최종 청렴체감도 점수는 대학이 낮게 나타나며, 이는 기관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영역별 가중치의 차이에 기인함

※ (공공기관) 외부체감도 70.4%, 내부체감도 29.6%

(국공립대학) 계약 영역 22.2%, 연구 및 행정 영역 77.8%

< 전체 공공기관 대비 청렴체감도 및 영역별 점수 비교 >



2. 계약 영역 체감도 평가 결과

- 각 대학과 구매·용역·공사 계약 업무를 경험한 계약상대방 및 관련자가 계약과정에서 인식·경험한 부패 수준(총 9개 항목)을 평가

< 계약 영역 세부 측정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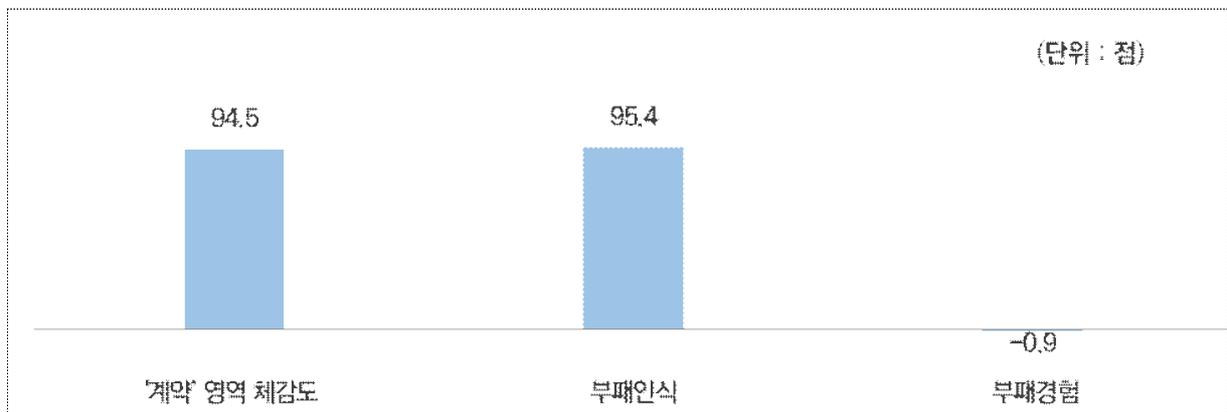
측정부문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계약 영역 체감도 점수			94.5
계약 영역 부패인식 점수			95.4
부패인식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0.184)	96.8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0.174)	95.6
		투명한 업무처리(0.127)	91.7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0.118)	95.0
공직자의 권한남용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0.140)	96.0	
	위법·부당한 행위나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0.160)	97.2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0.097)	94.2	
(최대 15점 감점으로 변환)			-0.9
부패경험	청렴의무 위반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0.552)	93.8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0.448)	93.8

※ 각각의 점수는 기관 평균점수를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측정 모형 산식에 대입 시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 영역의 체감도는 100점 만점에 **94.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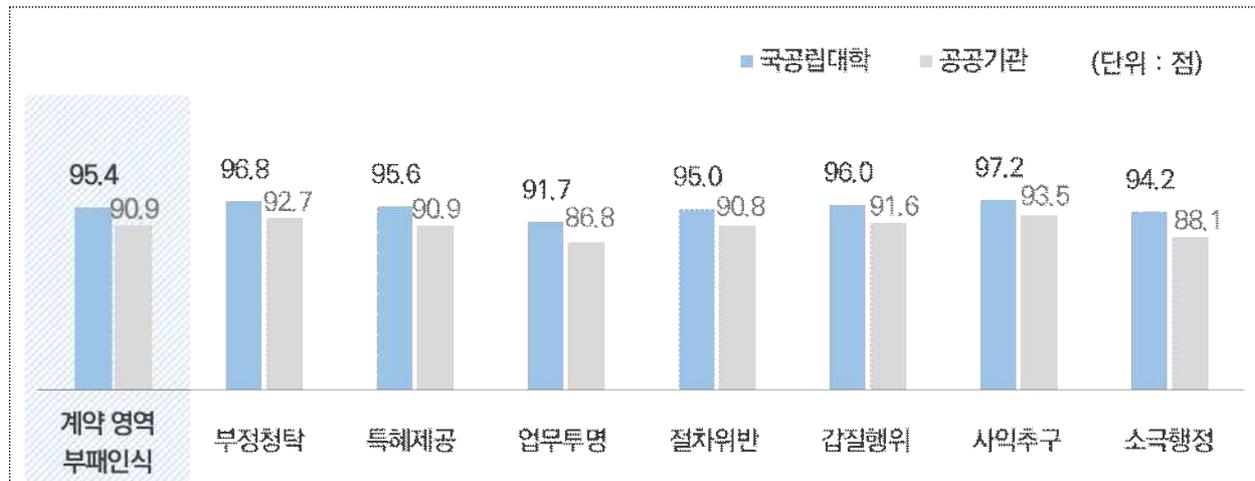
- 부패인식 점수는 **95.4점**, 부패경험 감점 점수는 **- 0.9점**

< 계약 영역 체감도 >



- **(부패인식)** 부패인식 점수는 **95.4점**으로 '사익추구'(97.2점)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업무투명'(91.7점)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전체 공공기관과 비교 시, 모든 항목에서 국공립대학의 부패인식 점수가 높게 나타남

< 계약 영역 부패인식 항목별 비교 >



- **(부패경험)** 부패경험 감점 점수는 **- 0.9점**으로 부패경험률은 **0.06%**, 응답자 평균 경험빈도는 **0.001회**로 나타남
 - 유형별로는 **향응(0.06%)**, **편의(0.06%)**에서 각각 경험이 나타났고, 금품, 채용 등 사적이익 및 거래특혜·정보에서는 경험이 나타나지 않음
 - 전체 공공기관과 비교 시, 금품·향응·편의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 계약 영역 세부 부패경험률 >

(단위 : %)

구 분	부패경험률 전체	금품	향응	편의	채용 등 사적이익	거래특혜·정보
국공립대학	0.06	-	0.06	0.06	-	-
전체 공공기관	0.42	0.15	0.14	0.18	0.08	0.06

2. 연구 및 행정 영역 체감도 평가 결과

- 대학 내부 구성원들이 기관 내부 운영 과정, 연구수행 과정 등에서 인식·경험한 부패 수준(총 13개 항목)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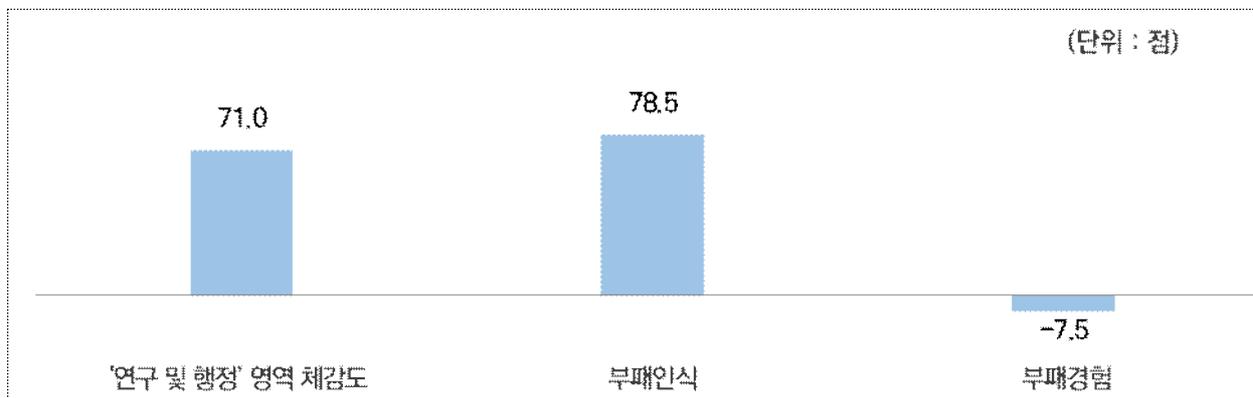
< 연구 및 행정 영역 세부 측정항목 >

측정부문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연구 및 행정 영역 체감도 점수			71.0
연구 및 행정 영역 부패인식 점수			78.5
부패인식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0.107)	80.8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0.112)	71.6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0.108)	78.9
	공직자의 권한남용	기준·절차를 위반한 인사업무 처리(0.093)	78.9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0.110)	72.9
		위법·부당한 행위나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0.124)	83.6
연구 관련 법령규정 위반	(연구비 외)예산의 위법부당 집행(0.111)	80.0	
	연구윤리 준수 여부(0.095)	78.5	
(최대 15점 감점으로 변환)			-7.5
부패경험	청렴의무 위반	조직내부 운영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0.264)	37.7
		조직내부 운영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0.235)	44.3
	연구비 횡령·편취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0.266)	54.4
		연구비 횡령·편취 빈도(0.235)	65.1

※ 각각의 점수는 기관 평균점수를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측정 모형 산식에 대입 시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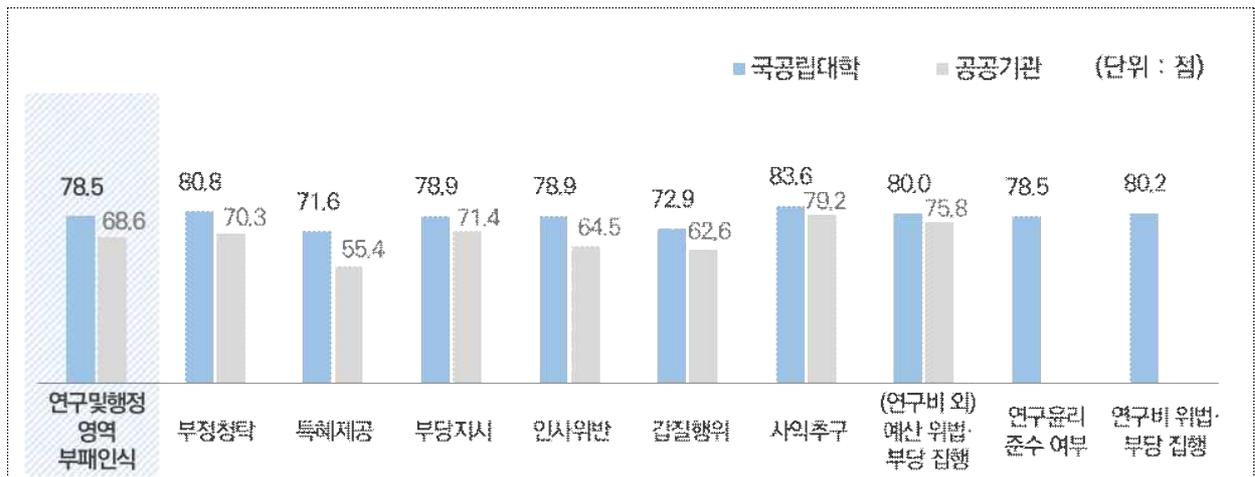
- 연구 및 행정 영역의 체감도는 100점 만점에 **71.0점**
- 부패인식 점수는 **78.5점**, 부패경험 감점 점수는 **- 7.5점**

< 연구 및 행정 영역 체감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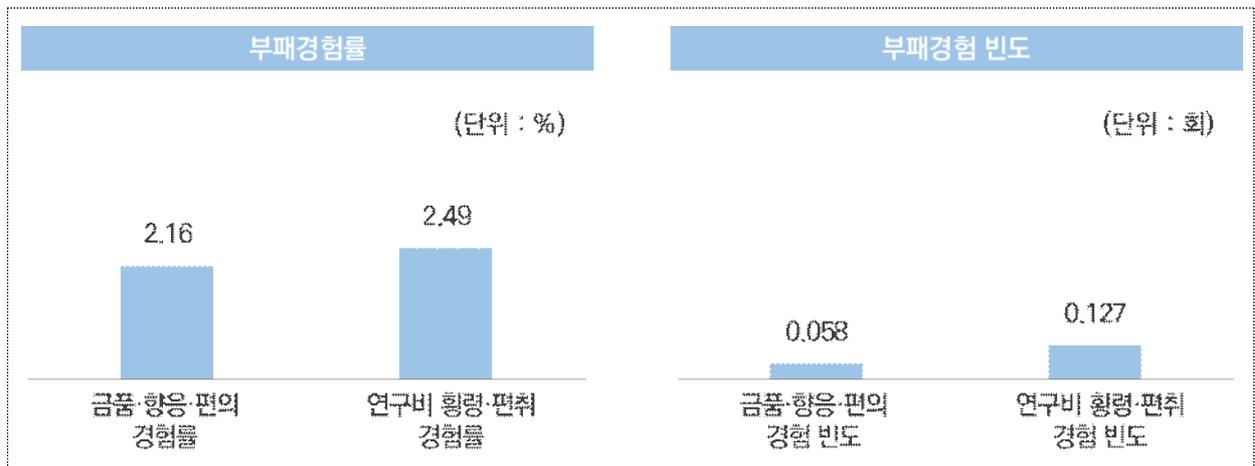
- **(부패인식)** 부패인식 점수는 **78.5점**으로 '사익추구'(83.6점)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혜제공'(71.6점)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전체 공공기관과 비교 시, 모든 공통 항목에서 국공립대학의 부패인식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연구 및 행정 영역 부패인식 항목별 비교 >



- **(부패경험)** 부패경험 감점 점수는 **- 7.5점**
 - 금품·향응·편의 등 경험률은 **2.16%**, 응답자 평균 경험빈도는 **0.058회**,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은 **2.49%**, 응답자 평균 경험빈도는 **0.127회**
 - 대학의 특수 부패취약 분야인 연구 관련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경험률, 경험빈도가 모두 높게 나타남

< 연구 및 행정 영역 부패경험 항목별 비교 >



- 금품·향응·편의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을 전체 공공기관과 비교 시, 국공립대학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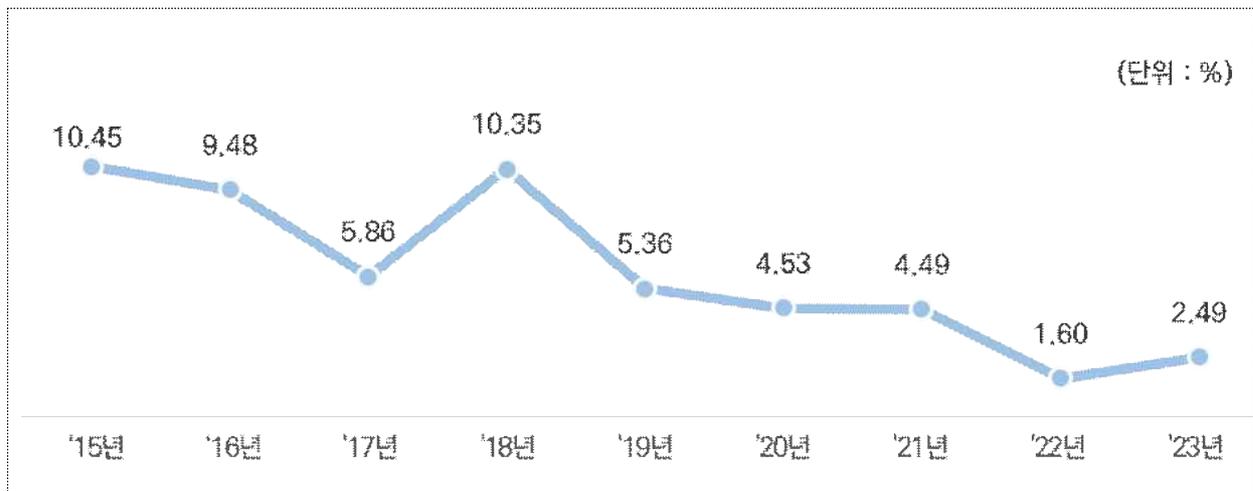
< 연구 및 행정 영역 세부 부패경험률 >

(단위 : %)

구분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금품	향응	편의	채용 등 사적이익	거래특혜· 정보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
국공립대학	2.16	0.85	0.79	0.96	0.61	0.15	2.49
전체 공공기관	1.99	0.56	0.67	1.01	0.67	0.15	

-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은 전년 대비 상승(0.89%p)한 2.49%로, '18년부터의 하락세가 꺾임

<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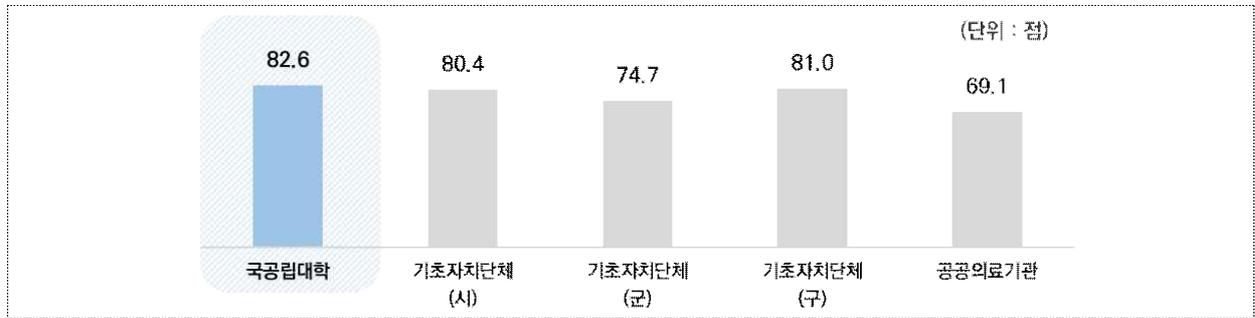
※ 경험률이 낮을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IV 청렴노력도 영역 평가 결과

1. 청렴노력도 영역 전반

- 16개 국공립대학 평균 청렴노력도는 82.6점으로 전년 대비 3.8점 상승
 - 특화지표(10개)를 적용받는 타 기관 유형(기초자치단체, 공공의료기관)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

< 특화지표 적용 기관 청렴노력도 점수 비교 >



- 지표별로 보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지표가 가장 높고(92.2점), ‘부패 유발요인 정비’ 지표가 가장 낮음(71.9점)
- 전체 공공기관(82.2점)과 비교 시, 청렴노력도는 0.4점 높게 나타남
 - 지표별로는 ‘부패 유발요인 정비’가 큰 차이로 낮게(71.9점, -19.5점) 나타났으며, ‘기관장 관심과 노력도’가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남(83.6점, +8.5점)

< 국공립대학 청렴노력도 지표별 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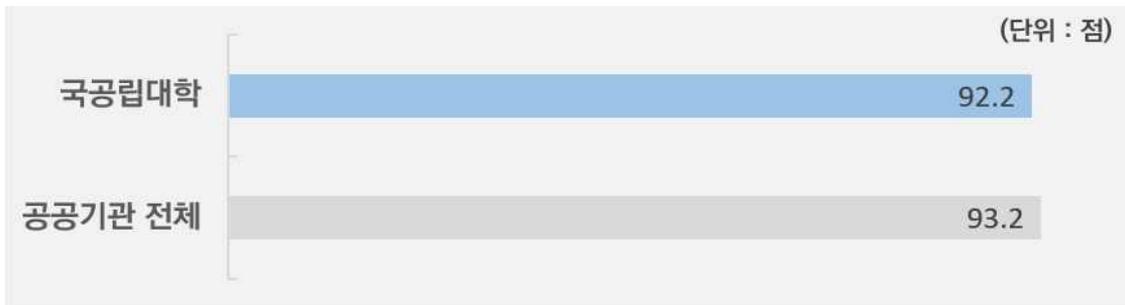
(단위 : 점)

구 분		국공립대학	전체 공공기관	차이
청렴노력도		82.6	82.2	+0.4
추진체계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92.2	93.2	-1.0
추진실적	[2] 기관별 부패취약 분야 개선	83.6	75.4	+8.2
추진체계	[3] 기관장(고위직 포함) 관심과 노력도	83.6	75.1	+8.5
추진실적	[4] 반부패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90.3	91.1	-0.8
추진실적	[5] 부패 유발요인 정비	71.9	91.4	-19.5
추진실적	[6]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노력 제고	83.8	87.1	-3.3
추진실적	[9]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84.4	86.3	-1.9
추진실적	[10] 감점 - 부패신고 처리 내실화 등	-0.03	-0.05	+0.02
추진실적	[11] 가점 -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등	+0.16	+0.42	-0.26
시책효과성	[12]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직원 평가	73.3	66.1	+7.2

2. 청렴노력도 지표별 평가 결과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 (지표) 기관별 실정에 맞는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조직 전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는지 평가
- (평가결과)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의 및 추진기반 마련'의 평균점수는 92.2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점수(93.2점)에 비해 낮은 수준



- 모든 평가대상 대학(16개, 100%)이 기한 내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
- 15개 대학(93.8%)이 기관장 주관 반부패·청렴 회의(부기관장 주관 포함)를 1회 이상 실시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지표 실적 >

(단위 : 개, 회)

구분	기관 수	추진계획 수립			기관장 주관 회의 운영 (부기관장 주관 포함)				평균
		기한내 수립	기한후 수립	미수립	0회	1~2회	3회	4회 이상	
국공립대학	16	16	0	0	1	2	12	1	2.7
공공기관 전체	498	492	6	0	37	58	315	88	2.8

- (성과) 기관 특성을 반영한 반부패 추진목표 및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 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청렴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보완) 형식적인 회의 운영에서 나아가 부패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장의 적극 참여 필요
 - 지속적인 기관장 주관 회의체 운영 지표 평가를 통해 내실화 도모 필요, 향후 워크숍 등을 통해 우수 회의 운영 사례 전파 추진

[2] 기관별 부패취약 분야 개선

- **(지표)** 기관별 부패취약 분야 분석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기관의 업무특성 등에 맞게 시책을 추진하였는지를 정성평가
- **(평가결과)** '기관별 부패취약 분야 개선'의 평균점수는 **83.6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점수(75.4점)에 비해 **높은 수준**
- **(성과)** 기관의 **고질적인 부패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자율적으로 발굴함에 따라 부패취약 분야 **대응 역량 향상**
 - 내·외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청렴도 평가 결과, 국정감사 결과, 집단심층면접(FGI)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취약분야 분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직 내·외부 부패 **유발요인** 개선을 위한 **체계적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 수립
- **(보완)** 일부 기관은 취약분야의 부패 발생 원인에 대한 다각적 분석 없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효과성에 한계**
 - 단순 문제점 나열에 그치지 않고 각종 감사자료, 언론보도, 의견수렴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 필요
 - 또한 도출된 부패취약 분야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정책수단**의 개발 및 활용이 요구됨

《 우수사례 》 울산과학기술원 : 실효성 있는 부패취약 분야 개선 전략 수립

울산과학기술원은 '연구비 집행' 분야를 부패취약 분야로 도출, 주요 원인을 연구비 집행 담당인 **연구행정지원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진단

→ **(개선노력)** ① 연구행정지원인력 신규 채용 시 5일에 걸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실시 후 학과(부)에 배치하도록 **정착교육프로그램** 시행, ② **계약 PL(파트 리더)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행정의 부가적 업무인 **계약 업무** 관련 교육 및 멘토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개선효과)** KISTEP 조사 결과 '**연구 서비스 만족도(업무처리 기준/절차 투명성)**' 항목에서 **전반적인 개선** 성과가 나타남

[3]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 (지표) 기관의 부패취약 분야 개선과정에서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의지와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사례에 대해 정성평가
- (평가결과)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의 평균점수는 83.6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점수(75.1점)에 비해 높은 수준
- (성과) 기관장·고위직의 청렴 시책 추진에 대한 의지 표명과 솔선수범 등을 통해 반부패 시책 추진 동력 확보
 - 평가기준에 부패취약 분야와의 연계성을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취약분야와 연계한 기관장의 다양한 활동 전개
 -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지표 평가 1등급 기관이 시책효과성 평가 중 관련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

< ‘기관장 관심과 노력도’ 지표 등급별 청렴수준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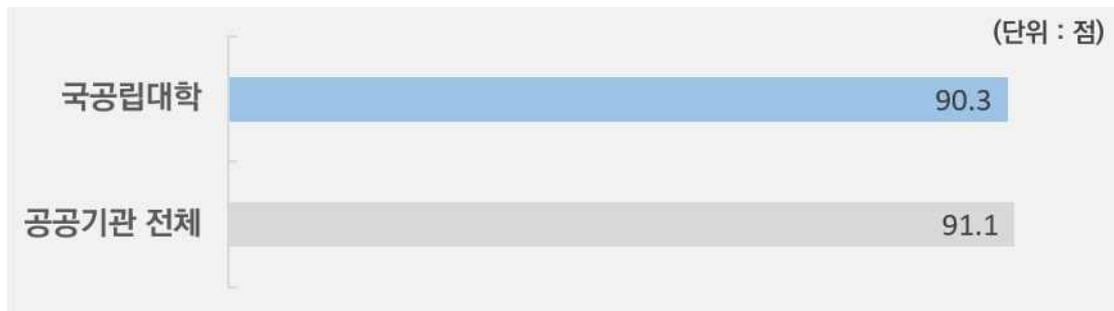
(단위 : 개, 점)

구분	기관수	시책효과성	
		부패취약 분야 개선 노력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국공립대학 전체	16	74.6	75.4
1등급	1	<u>75.8</u>	<u>77.7</u>
2등급	10	74.6	75.1
3등급	4	75.0	75.4
4등급	1	72.7	76.0
5등급	-	-	-

- (보완) 부패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기관장이 실질적으로 활동한 우수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지표 운영 필요
 - 청렴교육 등 의무적인 시책 또는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 결의대회 등 일회적·일상적 시책에 참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
 -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제도개선 추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실질적이고 생동감 있는 활동 강화 필요

[4]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지표)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과 기관별 청렴교육 이수 현황 공개 여부 평가
- (평가결과)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의 평균점수는 90.3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점수(91.1점)에 비해 낮은 수준



-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평가대상 대학 16개 모두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 그 중 11개 대학은 100% 이수 완료

< 고위직 반부패·청렴교육 이수 현황 >

(단위 : 명, %, 개)

구분	전체 이수율			기관별 이수율						
	현원	이수인원	이수율	전체	100%	97% 이상 100% 미만	94% 이상 97% 미만	90% 이상 94% 미만	86% 이상 90% 미만	86% 미만
국공립대학	432	419	97.0	16	11	1	2	1	0	1
공공기관 전체	11,327	10,913	96.3	498	414	9	12	11	6	46

- (청렴교육 이수 현황 공개 여부) 평가대상 대학 16개 모두 이수 현황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 완료

※ (공개내용) 전직원 교육이수율, 기관장 교육 참석 여부, 대면교육 대상자 (고위직·승진자·신규자) 이수 현황 등

- (성과) 고위공직자 총 432명 중 419명(97.0%)이 교육 이수, 전년 대비 이수율 큰 폭(21.1%p) 증가하여 고위직에 필요한 청렴역량 내재화

※ '22년 평가대상 대학(33개) 고위공직자 총 768명 중 583명 이수(75.9%)

- (보완) 교육이수율이 86% 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대학은 시책효과성 평가 중 관련 항목 점수도 낮게 나타남
 -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청렴교육 이행' 항목에서 교육이수율이 낮은(86% 미만) 경우에는 낮은 점수를 나타냄
 - 교육이수율 저조 기관의 청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청렴교육 의무제도 안내(교육실적 관리 방법 포함) 추진

< 고위직 교육 이수현황별 청렴수준 인식 >

(단위 : 개, 점)

구분	기관수	시책 효과성 직원 체감도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청렴교육 이행
국공립대학 전체	16	75.4	75.3
100% 이수	11	75.3	75.4
97% 이상 100% 미만	1	74.1	74.2
94% 이상 97% 미만	2	77.8	77.6
90% 이상 94% 미만	1	75.6	76.1
86% 이상 90% 미만	0	-	-
86% 미만	1	72.6	70.2

(5) 부패 유발요인 정비

- **(지표)** 기관의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 노력 및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전 예방 노력 등 평가
- **(평가결과)** '부패 유발요인 정비'의 평균점수는 **71.9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점수(91.4점)에 비해 **큰 폭으로 낮은 수준**
 -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 대부분 대학(93.8%, 15개)에서 **연간 4회 이상**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실시(전체 평균 5.1회 실시)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지표 실적 >

(단위 : 개, 회)

구분	기관수	행동강령 자체점검 횟수				평균 횟수
		6회 이상	4~5회	1~3회	미실시	
국공립대학	16	4	11	1	0	5.1
공공기관 전체	498	199	277	15	7	5.5

-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태점검)** 국민권익위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태 점검 자료를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하여 감점된 대학 없음
- **(채용분야 일상감사 적용)** 평가대상 대학 중 **10개 대학(62.5%)**이 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 규정화 이행
- **(채용과정 검증 강화)** 평가대상 대학 중 **10개 대학(62.5%)**이 최종합격자 결정 전 '공정채용 검증위원회'를 실시하도록 운영 근거 명시

< 공정채용 제도화 지표 실적 >

(단위 : 개)

구분	기관수	공정채용 제도화 이행 기관수	
		일상감사 규정화	공정채용 검증위 규정화
국공립대학	16	10	10

- **(성과)** 명절, 휴가철 등 부패 취약시기 및 외부강의 등 취약분야 대상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부패 발생 소지 근원적 차단**
- **(보완)** 세부지표 중 **공정채용 제도화 지표 실적 부진**으로 '부패 유발요인 정비' 지표 점수가 노력도 전체 지표 중 **최하위**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분야 일상감사 적용' 및 '채용과정 검증 강화' 등 공정채용 제도화 지속적 이행** 독려 필요

[6]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 (지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조치 자체 점검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관리 실적 평가
- (평가결과)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의 평균 점수는 83.8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점수(87.1점)에 비해 낮은 수준
- (성과)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활성화를 통해 국가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
 - 평가대상 대학 대부분(87.5%, 14개)이 연간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과다청구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지표 실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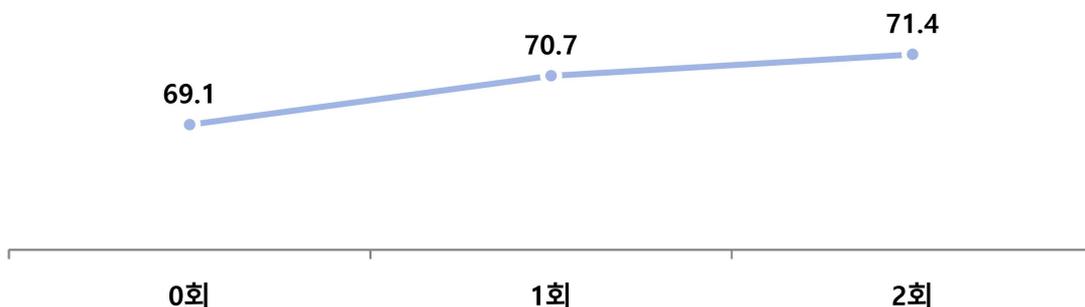
(단위 : 개, 회)

구분	기관수	자체점검 횟수				
		3회 이상	2회	1회	미실시	평균 횟수
국립대학	16	0	12	2	2	1.6
공공기관 전체	498	100	328	40	30	2.1

- 공공재정환수등 자체점검 실적이 많은 기관일수록 내부직원이 평가한 청렴체감도 평균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공공재정 자체점검 횟수에 따른 내부체감도 평균 >

(단위 : 점)



- (보완) 공공재정 환수법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 평가지표 발전·보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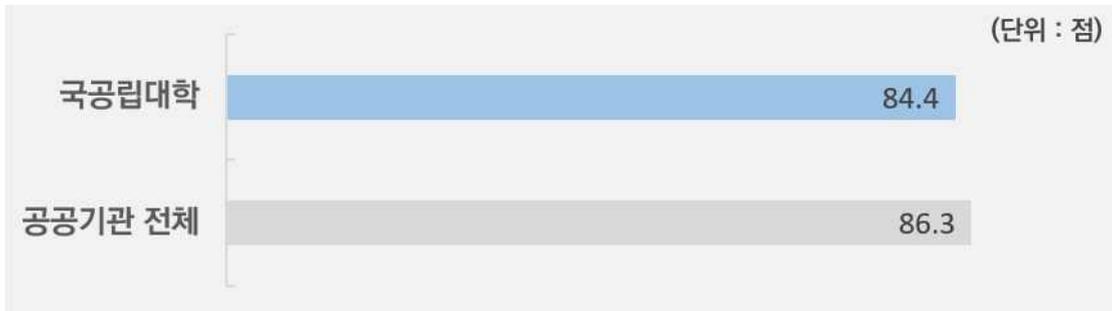
(9)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 (지표) 기관의 다양한 반부패·청렴 관련 정보를 청렴포털을 통해 공개하여 기관별 벤치마킹 및 청렴시책 추진 활성화 여건 조성

< 주요 정보공개 사항 >

- △ (청렴활동) 각급기관에서 실시한 우수시책,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
- △ (각종 부패 관련 신고) 부패·공익침해행위·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상담 사례
- △ (반부패 분야 지침) 반부패 관련 개정된 각급기관의 지침

- (평가결과)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의 평균점수는 84.4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점수(86.3점)에 비해 낮은 수준



- (성과) 청렴포털을 통한 반부패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및 기관별 벤치마킹 계기 마련
 -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던 반부패 정보를 '청렴포털'로 일원화하여 반부패 시책 추진의 시너지 효과 창출

<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지표 실적 >

(단위 : 개, %)

구분	기관수	청렴활동 공개		신고사례 공개		반부패개정지침 공개	
		3건 이상 기관수	비율	3건 이상 기관수	비율	1건 이상 기관수	비율
국공립대학	16	14	87.5	11	68.8	15	93.8
공공기관 전체	498	443	89.0	397	79.7	445	89.4

- (보완) 신고(또는 상담, 적발) 사례가 다른 정보에 비해 공개 실적 미흡
 - 공개 기관은 모두 3건 이상 공개하였으나 미흡 기관은 모두 0건, 달성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지속적 관심·독려 필요

[10] 감점 지표 - 부패신고 처리 내실화 등

- (지표) ① 부패신고 등 처리 내실화, ②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③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3개 세부지표로 구성
- (평가결과 및 성과) 국공립대학 감점 평균은 0.03점으로 공공기관 감점 평균(0.05점)보다 적은 수준, '신고창구 개설 여부'에서만 감점 발생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평가대상 대학 전부(16개, 100%)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법정기한 내 공개 완료
 - (신고창구 개설·운영 여부) 대다수 대학(15개, 93.8%) 신고창구 연결하여 표준화된 신고처리 절차 등 기반 마련

< 감점 기관 수 및 점수 >

(단위 : 개, 점)

구분	기관수	부패신고 등 처리 내실화			청렴도 결과공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감점
		권익위 이첩사건 미이행	청탁금지법 부적절사례 미이행	신고창구 미개설	미공개 지연공개	보호결정 미이행	보호사건 미협조	
국공립대학	16	0	0	1	0	0	0	-0.03
공공기관 전체	498	14	0	5	23	2	0	-0.05

[11] 가점 지표 - 청렴컨설팅 추진노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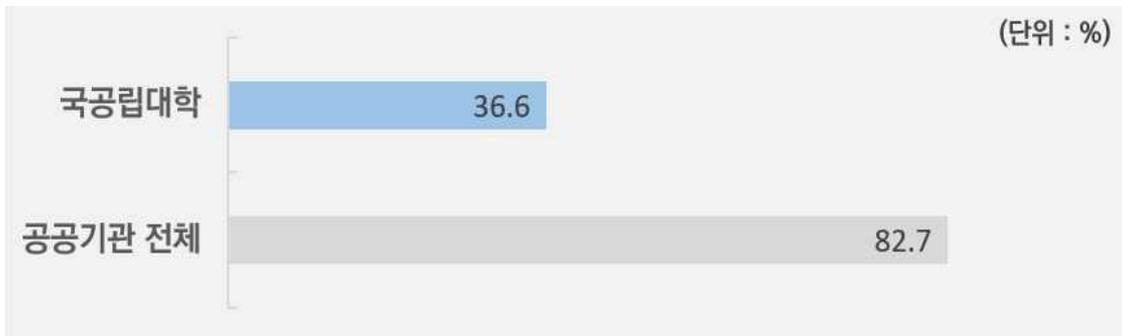
- (지표) ① 청렴컨설팅 추진노력, ② 공공기관 갑질개선 노력 강화, ③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구현 노력 3개 세부지표로 구성
- (평가결과 및 성과) 국공립대학 가점 평균은 0.16점으로 공공기관 가점 평균(0.42점)보다 적은 수준
 - (갑질개선 노력) 10개 대학(62.5%)에서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행동강령 대면 교육 실시, 그 중 4개 대학은 기관장이 직접 강의 실시
 - (적극행정 구현 노력) 1개 대학(6.3%)에서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의견제시 1건을 수용하여 반영

< 가점기관 수 및 점수 >

(단위 : 개, 점)

구분	기관수	갑질개선노력			적극행정	가점
		관련교육 실시	기관장 이수	기관장 강의	국민의견 반영	
국공립대학	16	10	9	4	1	+0.16
공공기관 전체	498	434	413	212	82	+0.42

- (보완) 행동강령 대면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도 대부분 이수율은 80% 미만(실시 대학 10개 중 9개), 전체 국공립대학 이수율 36.6%
- 전체 공공기관의 이수율(82.7%)에 비해 현저히 저조



< 국공립대학 갑질 관련 행동강령 교육 이수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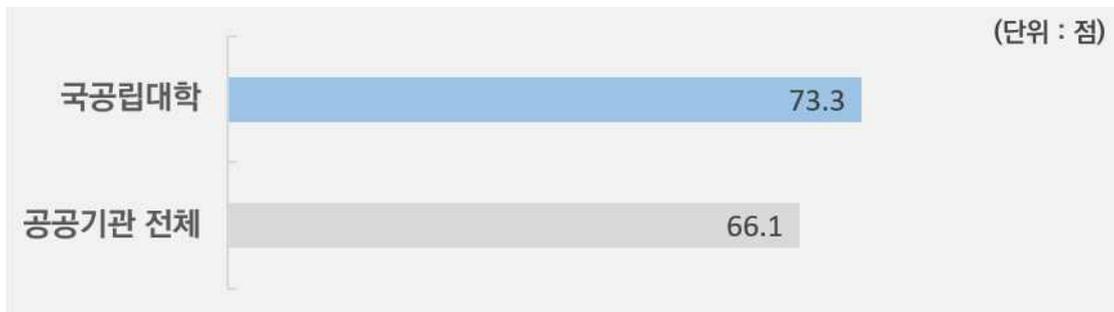
(단위 : 개, %)

구분	기관수	갑질 관련 행동강령 교육 이수 현황								
		전체 이수율			기관별 이수율					평균
		대상 인원	이수 인원	이수율	100%	80% 이상	80% 미만	0%		
국공립대학	16	1,160	424	36.6	0	1	9	6	23.2	
전체 공공기관	498	25,179	20,816	82.7	95	268	71	64	76.1	

- 다만, 반부패·청렴교육 지표와 별도로 운영되어 일선 현장에서 평가 및 직원 이수현황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

[12] 반부패 시책 효과성 평가

- (지표) 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반부패 시책에 대한 구성원의 효과성 평가
 - 필수적인 제도·시책 중심 5개 항목의 효과성 설문
 - ※ ① 부패취약 분야 개선 노력, ②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③ 청렴교육 이행, ④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⑤ 갑질 개선 노력
 -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타 노력도 지표와 달리 청렴체감도 설문 과정에서 관련 문항에 대한 설문 실시 후 결과 반영
- (평가결과) ‘반부패 시책효과성 평가’의 평균점수는 73.3점으로 타 지표 대비 낮은 수준이나 전체 공공기관 평균(66.1점) 대비 높음



- (항목별 분석)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청렴교육 이행에 대한 체감 인식이 75.4점으로 가장 높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이 70.3점으로 가장 낮음

< 시책효과성 평가 항목별 인식 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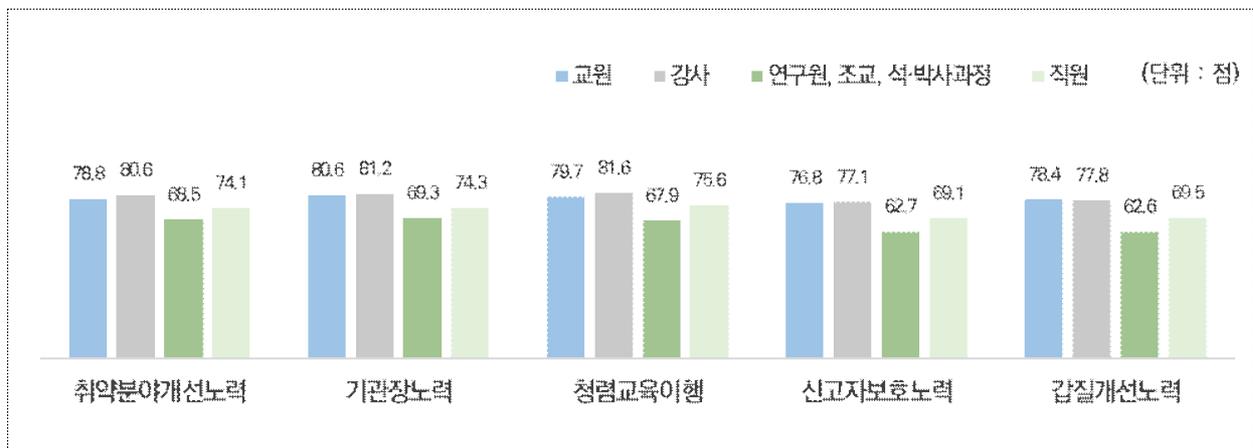
구분	시책 효과성(점)	취약분야 개선노력	기관장 노력	청렴교육 이행	신고자 보호노력	갑질 개선노력
국공립대학	73.3	74.6	75.4	75.4	70.3	71.0
전체 공공기관	66.1	67.5	67.7	68.8	62.0	64.5

- (직종별 분석) 다른 직종에 비해 ‘강사’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연구원, 조교, 석·박사과정’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냄
- (근무연수별 분석) 모든 항목에서 근무기간이 길수록 시책효과성 체감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직종 및 근무연수별 시책효과성 평가 결과 >

구분		시책 효과성(점)	취약분야 개선노력	기관장 노력	청렴교육 이행	신고자 보호노력	갑질 개선노력
직종별	교원	78.9	78.8	80.6	79.7	76.8	78.4
	강사	79.7	80.6	81.2	81.6	77.1	77.8
	연구원, 조교, 석·박사과정	66.2	68.5	69.3	67.9	62.7	62.6
	직원	72.5	74.1	74.3	75.6	69.1	69.5
근무 연수별	10년 이하	70.9	72.5	73.2	72.9	67.7	68.1
	11~20년	75.5	76.5	77.4	77.7	72.1	73.6
	21~30년	80.1	81.0	81.7	81.4	77.8	78.7
	31년 이상	80.9	80.5	81.6	83.0	79.6	79.7

< 직종별 시책효과성 인식 점수 >



- (성과) 국공립대학이 전체 공공기관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높은 체감 수준을 보임
- (보완) 모든 항목에서 10년 이하 저연차 구성원의 시책효과성 체감 수준이 가장 낮음
 - 반부패 시책 추진 시 구성원 특성 등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책 추진 여건 조성 필요

V

부패실태 평가 결과

□ 부패사건 감점 현황

- 국공립대학 감점 적용대상 부패사건은 총 9개 대학(56.3%) 33건으로 전체 부패사건 감점 평균은 -1.2점
 - 감점 적용 9개 대학 중 외부적발 부패사건 건수 및 비율이 높은 3개 대학에 대해 추가 감점 부여
 - ※ 전체 외부적발 부패사건이 5건 이상, 외부적발 비율 50% 초과
- 감점 적용기관당 평균 사건 수는 3.7건, 평균 감점은 -2.1점
 - 전년 대비 평균 사건 수는 증가하였으나 감점 규모는 감소
 - ※ 전년도와 감점 적용 방식이 달라져 감점 규모의 직접적 비교는 한계
(’22년) 정량감점(최대 10점) + 정성감점(최대 5점)
(’23년) 정량감점(최대 5점) + 정성감점(최대 5점)
- 전년 대비 발생률은 감소(72.7% → 56.3%)하였으나 평균 발생금액이 증가
 - (감점기관 평균) ’22년 4,483만 원 → ’23년 7,321만 원
 - (사건당 평균) ’22년 1,379만 원 → ’23년 1,997만 원

< 국공립대학 부패사건 감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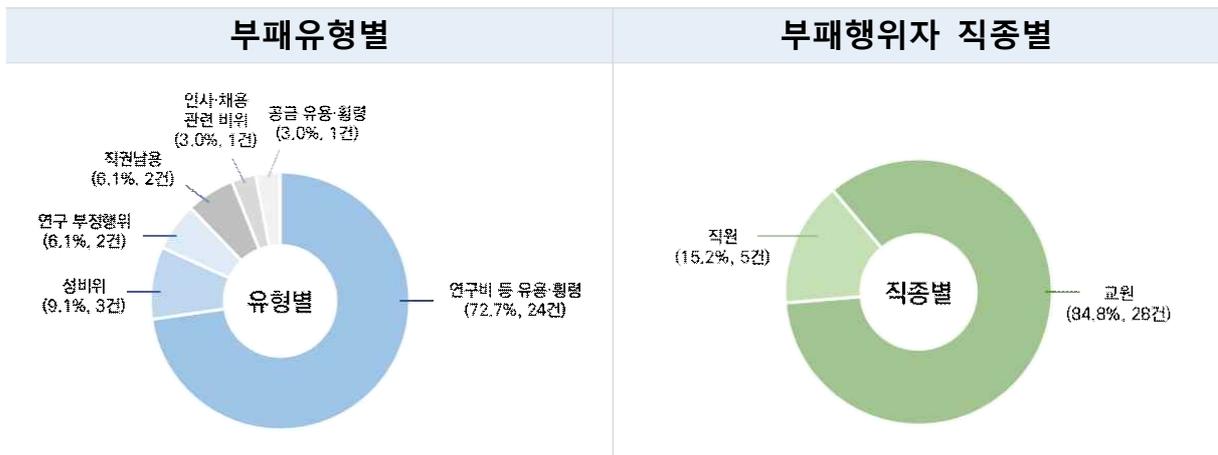
구분	감점기관(개, %)			사건수(건)		발생금액(만원)			감점(점)	
	평가 대상 기관	감점 대상 기관	발생률	전체 건수	감점 기관 평균	전체 금액*	감점기관 평균금액	사건당 평균금액	전체 기관 평균	감점 기관 평균
2023	16	9	56.3	33	3.7	65,890	7,321	1,997	-1.2	-2.1
2022	33	24	72.7	78	3.3	107,594	4,483	1,379	-2.7	-3.8

* 금액 : 연구비 유용·횡령 등 부패금액 확인 가능한 사건 25건 기준

□ **부패행위 유형별, 직종별 분석 결과**

- 대학의 특수한 부패취약 분야인 연구 관련 분야에서 부패사건이 주로 발생(연구비 등 유용·횡령 24건, 연구부정행위 2건 총 26건으로 78.8%)
- 유형별로는 ‘연구비 등 유용·횡령’(72.7%)이 가장 많고, 행위자 직종별로는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84.8%) 직종이 대부분을 차지

< 유형별, 직종별 부패발생률 >



□ **종합청렴도 등급별 부패실태 감점 현황**

-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 중에는 부패실태 감점 기관이 없었고, 2등급 기관 중 감점 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80%)

< 등급별 부패실태 감점 기관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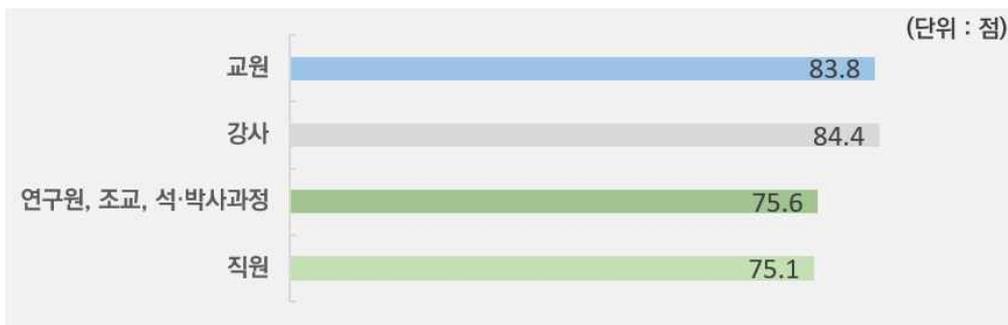
구분	전체 기관	감점 기관	비감점 기관
전체	16개	9개	7개
1등급	1개	0개(0%)	1개(100%)
2등급	5개	4개(80%)	1개(20%)
3등급	5개	3개(60%)	2개(40%)
4등급	5개	3개(60%)	2개(40%)
5등급	0개	-	-

VI 심층 분석

- ◇ 국공립대학은 일반적인 공공기관과 달리 **학술, 연구 등 내부활동의 비중이 큰 특성**이 있어 연구 및 행정 영역에서 **관련 분야의 청렴 수준을 추가로 측정**하고 있음
- ◇ 이에 연구 및 행정 영역의 **부패인식·부패경험 조사 결과 직종별 분석, 연구 관련 법령·규정 위반 부문 추가 분석** 등 심층분석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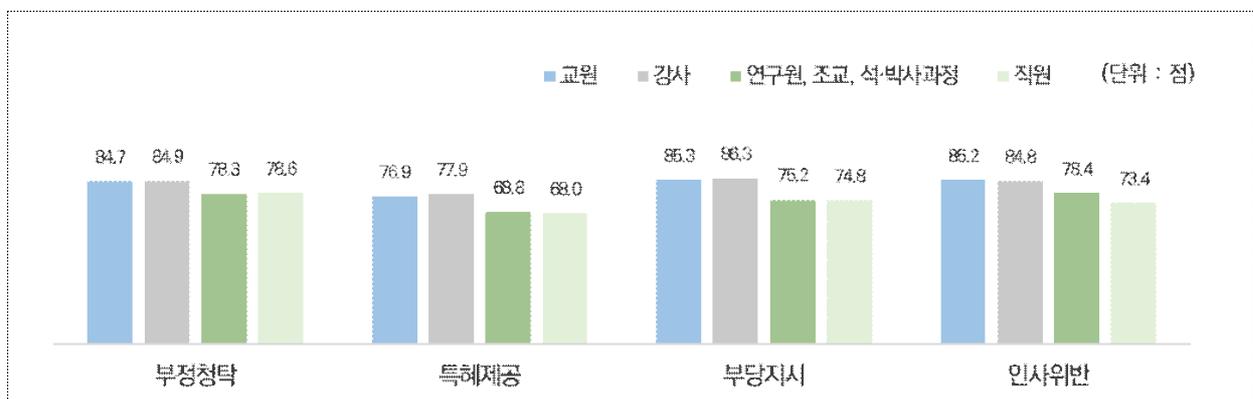
□ 직종별 부패인식 분석

- (전체) 전체 부패인식 점수는 '강사'의 점수가 높게(84.4점) 나타났고, '직원'의 점수가 낮게(75.1점)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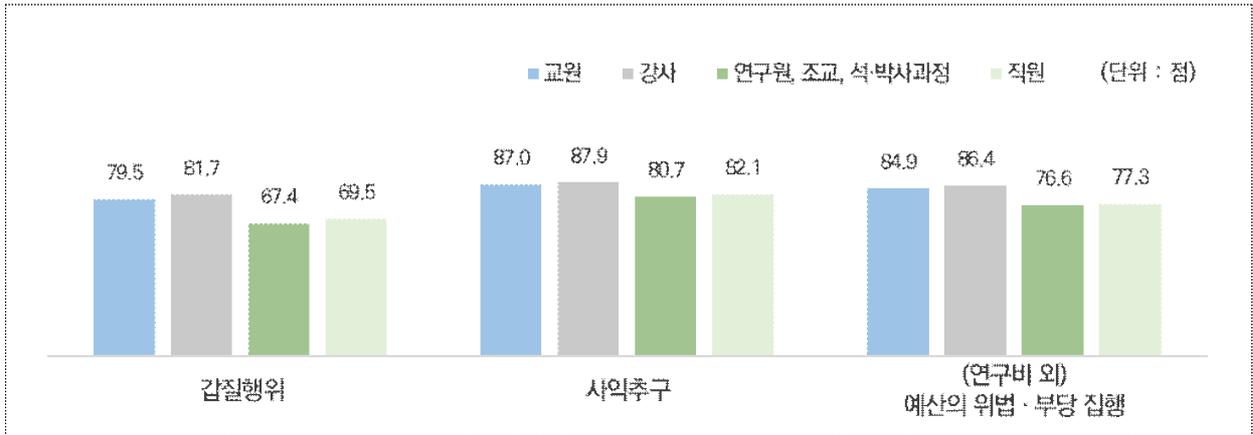
- (불공정한 직무수행) 모든 직종에서 **특혜제공 항목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특히 '직원'의 점수가 가장 낮게(68.0점) 나타남

< 직종별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문 점수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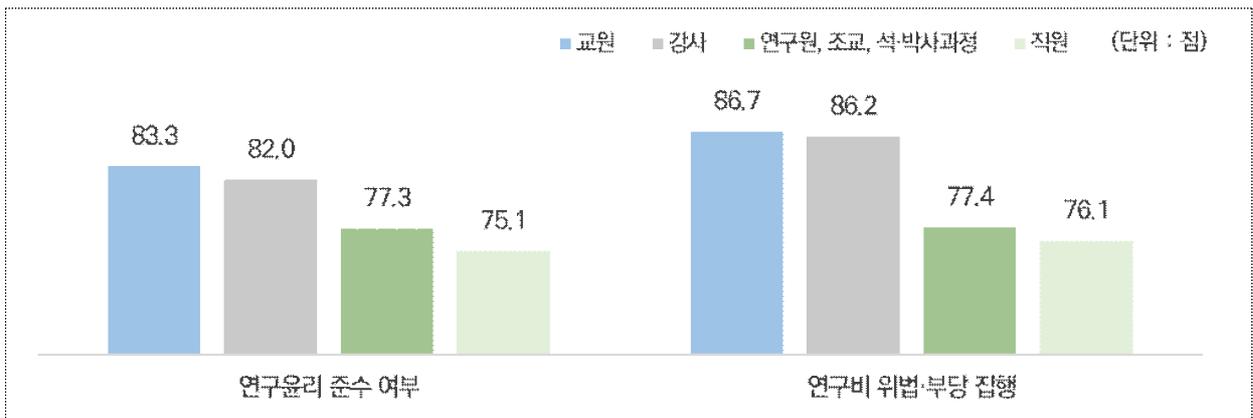
- (공직자의 권한남용) 모든 직종에서 **갑질행위 항목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연구원, 조교, 석·박사과정'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음

< 직종별 공직자의 권한남용 부문 점수 비교 >



- (연구 관련 법령·규정 위반) 세부항목 모두 '교원', '강사'의 점수가 높았고, '연구원, 조교, 석·박사과정' 및 '직원'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연구윤리 준수 여부' 또한 '교원'의 점수가 가장 높게(83.3점) 나타났고, '직원'의 점수가 가장 낮게(75.1점) 나타남
 -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은 '교원'의 점수가 가장 높게(86.7점) 나타났고, '직원'의 점수가 가장 낮게(76.1점)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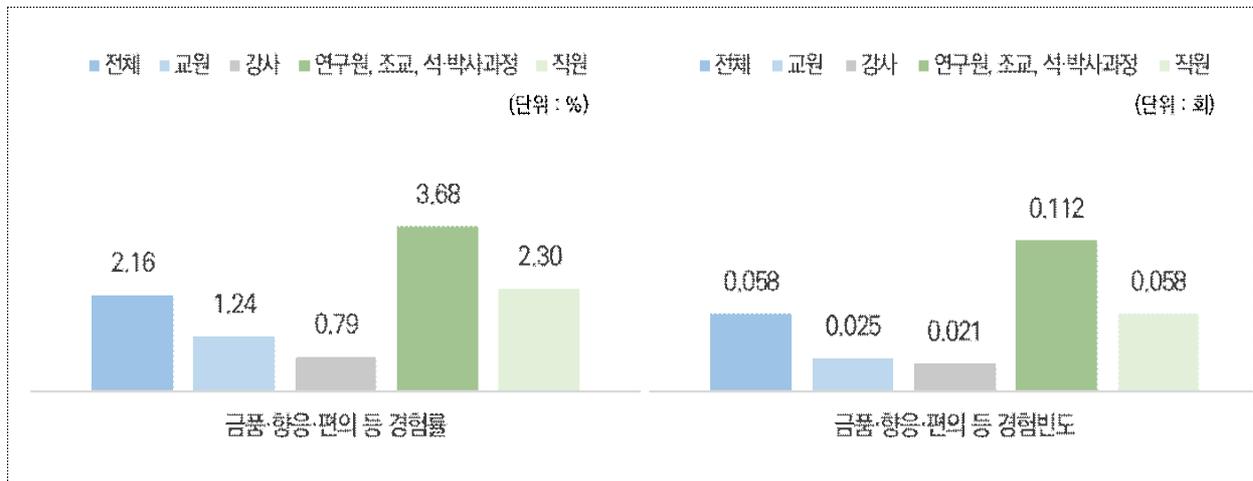
< 직종별 연구 관련 법령·규정 위반 부문 점수 비교 >



□ 직종별 부패경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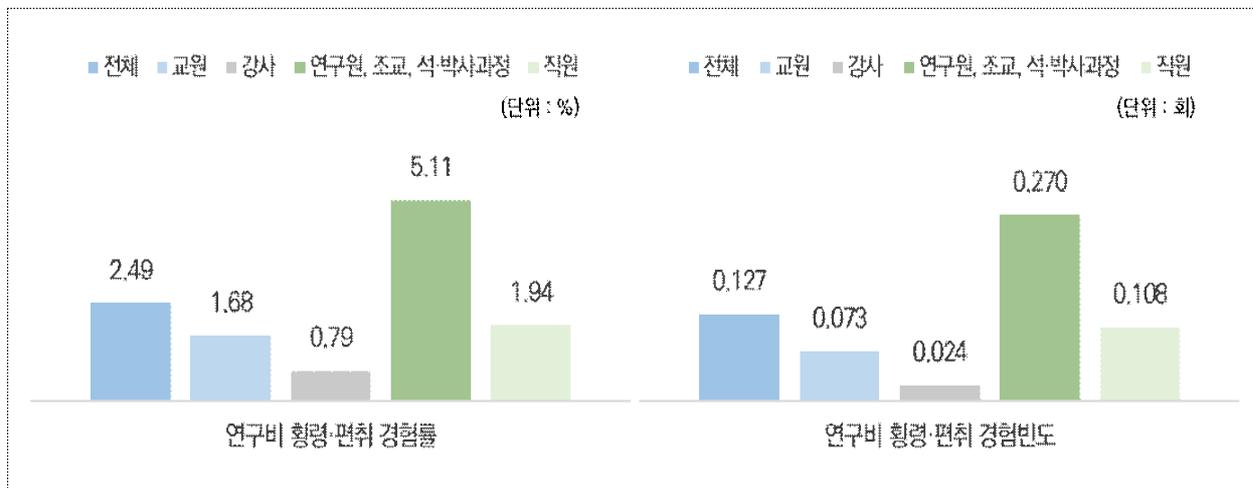
- 금품·향응·편의 등 경험률·경험빈도,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경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직종별 차이가 뚜렷
- 금품·향응·편의 등 경험과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 모두에서 '연구원, 조교, 석·박사과정'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사'가 가장 적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직종별 차이는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 부문에서 더욱 두드러짐

< 직종별 금품·향응·편의 등 경험률, 경험빈도 >



※ 경험빈도는 응답자 1인 평균값(경험자가 응답한 빈도의 총합/전체 응답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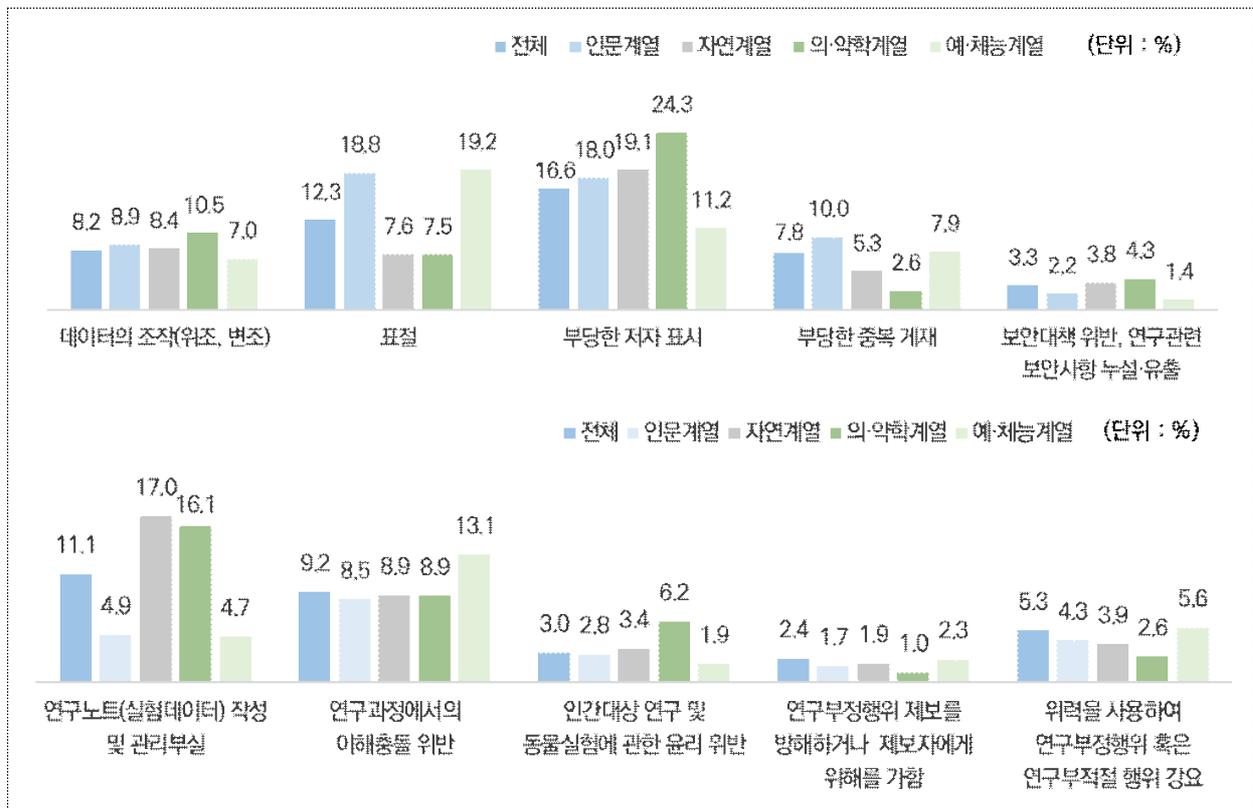
< 직종별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 경험빈도 >



□ 연구 관련 법령·규정 위반 부문 추가 분석

- ‘연구윤리 위반행위 빈발 분야’에 대해 ‘부당한 저자표시’(16.6%), ‘표절’(12.3%), ‘연구노트(실험데이터) 작성 및 관리부실’(11.1%), ‘연구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위반’(9.2%) 등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 학과별로는 인문, 예·체능 계열은 ‘표절’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자연, 의·약학 계열은 ‘부당한 저자표시’를 가장 많이 응답함
- ※ (표절) 예·체능(19.2%), 인문(18.8%), 자연(7.6%), 의·약학(7.5%) 순
(부당 저자표시) 의·약학(24.3%), 자연(19.1%), 인문(18.0%), 예·체능(11.2%)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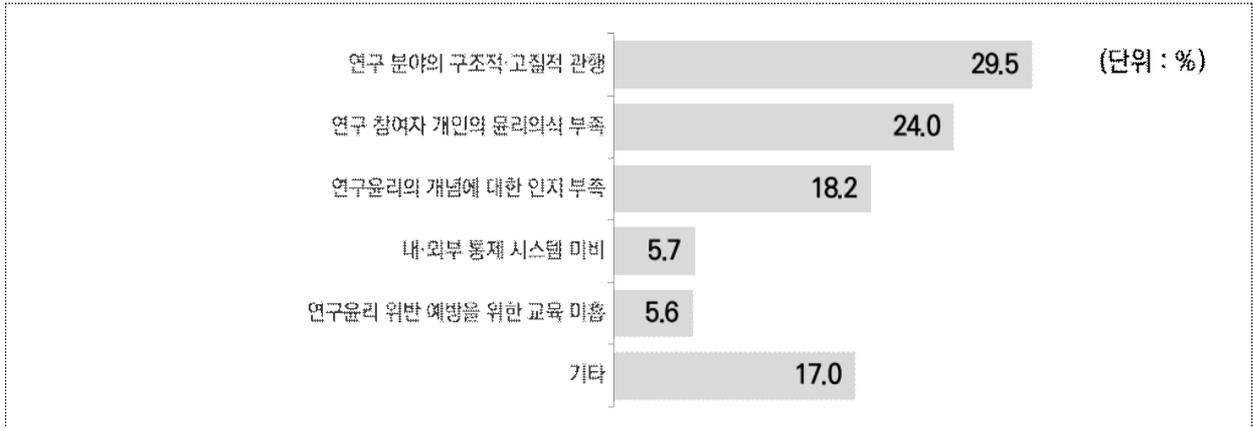
< 학과별 연구윤리 위반 빈발 분야 응답 분포 >



※ 인문계열(인문, 사회, 법정, 경상, 사범 등 포함), 자연계열(자연, 이공 등 포함)

- ‘연구윤리 위반의 주요 원인’에 대해, ‘연구 분야의 구조적·고질적 관행’(29.5%)을 가장 많이 응답
-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24.0%), ‘연구윤리 개념에 대한 인지 부족’(18.2%), ‘내·외부 통제시스템 미비’(5.7%) ‘연구윤리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 미흡’(5.6%) 순으로 나타남

< 연구윤리 위반 주요 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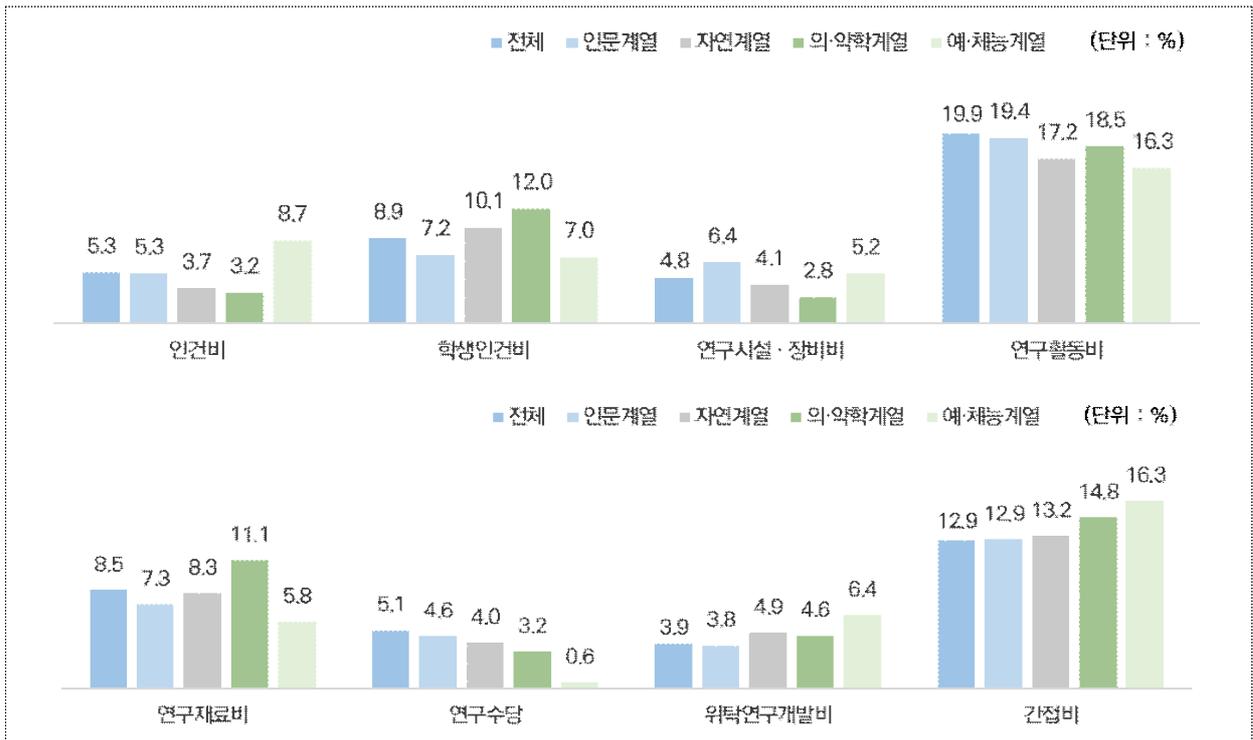


○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빈발 비목’에 대해 ‘연구활동비’(19.9%), ‘간접비’(12.9%), ‘학생인건비’(8.9%) 등 순으로 나타남

- 학과별로는 인문, 자연, 의·약학계열은 ‘연구활동비’를 가장 많이 응답했고, 예·체능계열은 ‘연구활동비’(16.3%), ‘간접비’(16.3%)를 가장 많이 응답함

※ 인문(19.4%), 의·약학(18.5%), 자연(17.2%), 예·체능(16.3%) 순

<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빈발 비목 >



- 대상기관 평가결과 공개(~'24.1월, 기관 홈페이지) 및 공개 결과 제출(~'24.3월)
 -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결과발표 후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
- 우수기관 및 담당자 유공 포상('24.2월 예정)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시 취약분야 분석·활용(~'24.5월)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노력도) 등급표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16)	청렴체감도(16)	청렴노력도(16)	부패 실태
1 년 간	부경대학교 (-)	공주대학교 (▲2등급)	울산과학기술원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년 간	경북대학교 (▲2등급) 공주대학교 (▲1등급) 울산과학기술원 (▼1등급) 전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1등급)	강원대학교 (▲1등급) 경북대학교 (▲1등급) 부경대학교 (-) 충북대학교 (-)	경북대학교 (▲1등급) 부경대학교 (-) 전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	
3 년 간	경상국립대학교 (-) 부산대학교 (-) 인천대학교 (▼1등급) 충남대학교 (▲1등급) 한국과학기술원 (-)	경상국립대학교 (▲1등급) 부산대학교 (▼1등급) 울산과학기술원 (▼1등급) 인천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1등급) 충남대학교 (-)	경상국립대학교 (▼1등급) 공주대학교 (-) 부산대학교 (▼1등급) 서울대학교 (-) 인천대학교 (-) 충남대학교 (▼1등급)	
4 년 간	강원대학교 (▼1등급) 광주과학기술원 (▼1등급)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등급) 서울대학교 (▼1등급) 전북대학교 (-)	광주과학기술원 (▲1등급) 서울대학교 (▲1등급) 한국과학기술원 (▲1등급)	광주과학기술원 (▼2등급)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등급) 전북대학교 (▼1등급)	
5 년 간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등급)	강원대학교 (▼3등급)	